

코스피 떠나는 국내투자자... 美주식·가상화폐 거래량 급등

뉴욕 3대 지수 모두 최고치 경신
테슬라 보관액, 179억달러 달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대금
올해 최고치보다 147.31% 늘어

#. A씨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500만 원을 환전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에 달하는 시점이었지만 환전을 망설일 겨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00만원 중 370만원은 코스피에 상장된 B동박기업을 '손절(손해를 보더라도 적당한 시점에서 매도)'해 지킨 자산이다. A씨는 2년 동안 B동박기업 주식이 오를 거란 기대를 했지만 주가는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12일 장중 코스피 2500선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국내 주식이 눈에 띄게 오를 거라는 희망고문에 기댈 수는 없다"고 판단해 전부를 매도했다. 32%가량 손실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A씨는 환전한 3563달러를 전 채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뉴욕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가상화폐 투자와 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린 국내 개인투자자 이미지.

뉴욕 증시가 '트럼프 랠리'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49.09포인트(1.94%) 하락한 2482.57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중가 기준으로 2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

은 8월 5일 '블랙먼데이' (종가 2441.55) 이후 3개월 만이다.

반면 미국 증시는 '트럼프 랠리' 덕분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4만4293.13포인트로 0.69% 상승했고, S&P500 지수는 6001.35포인트로 0.1% 올랐으며, 나

스닥 지수는 1만9298.7포인트로 0.06% 상승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급등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한국에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테슬라 보관액은 179억 592만달러다. 이는 역대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보관액 최고치다.

테슬라에 투자 중인 한 개인투자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는데,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다"며 "테슬라가 계속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뉴욕 증시 상장 기업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외에도 급등세를 보이는 가상화폐(코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197억 6009만달러(약 27조7570억원)로, 올해 최고치였던 지난 3월 6일 기록한 79억 9007만달러보다 147.31% 증가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선 이후 코인 투자를 시작한 또 다른 투자자는 "주식처럼 적립식 자동 투자 서비스로 코인을 모으고 있는데, 수익률 증가 속도를 보니 손실을 본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라도 투자를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코인 모으기 서비스'는 출시 3개월 만에 150억원을 돌파했고, 일주일만에 50억원가량 투자 규모가 증가하며 현재 누적액은 200억원을 넘어섰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포모 현상(FOMO,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지면 거래량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새내기株 급락·상장 연기... IPO 시장 한파

이달 상장한 공모주 7개 중 6개
상장 당일 공모가 하회... 부진 양상
SGI서울보증보험 등 일정 연기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에 냉기가 돌고 있다. IPO를 준비하던 대어급 기업들이 상장을 연기하고 있는 데다 신규 상장 기업들의 주가마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에 상장한 공모주 7개 중 6개가 상장 당일 공모가를 크게 밀도는 등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이텍스는 상장 첫날 하락률이 38.25%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기록(하락률 기준)을 썼으며, 토모큐브(-37.06%), 에이치이엠파마(-28.7%), 탐런토탈솔루션(-23.67%), 에어레인(-23.52%) 등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이들 종목의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노머스의 주가 역시 상장 직후 공모가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

더본코리아만 상장 첫날 51% 상승하며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했지만, 사흘 만에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장일 '반짝효과'에 그쳤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관사들이 공모가를 기업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서 IPO 시장의 매력도 감소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공모주에 대한 초기 상승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몰렸으나, 현재 공모가가 너무 높게 시작돼 추가 상승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조단위 몸값을 내세운 대어급 기업들이 상장 일정을 연기한 것도 IPO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내년 1월 상장을 목표로 했던 SGI서울보증보험은 최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상장 주관사와 협의, 증권신고서 제출 시기를 내년으로 잠정 확정했다. 지난달에 5조원 몸값을 내세웠던 케이뱅크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의 실패로 상장을 내

년으로 연기했다. 여기에 토스 운영사 인비바리퍼블리카가 국내 상장 계획을 철회하고 미국 시장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IPO 시장이 침체되면서 최근 몸값을 낮추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있다. 지난달 말 수요예측을 마친 엠오티는 공모희망가를 1만2000~1만4000원으로 책정했으나 결국 1만원을 공모가로 확정했다. 에스캠 또한 희망공모가액(1만3000~1만4600원) 하단보다 낮은 1만원을 공모가로 결정했으며, 쓰리빌리언은 희망공모가(4500~6500원) 하단인 4500원을 공모가로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IPO 시장의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 시장이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데다 투자자들의 신뢰도 바닥으로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투협, 채권형 투자일임·신탁 리스크관리

잘못된 증권사 운용관행 재발 방지

금융투자협회는 12일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채권형 투자일임과 특정금전신탁 운용 등과 관련해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등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규정돼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 개선과 시장 충격 시 계약 유효성 관리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한 추가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상황

에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일부 증권사에서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편입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들에 대한 환매 대응을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당시 논란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및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왔다. /원관희 기자

한투운용, 베트남 우량주·국내 회사채 분산투자로 안정성 ↑

'한국투자베트남주식35펀드' 출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베트남 대형 우량주와 국내 우량 회사채에 함께 투자하는 '한국투자베트남주식35펀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투자베트남주식35펀드'는 재간접펀드로서 베트남 주식형 펀드인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모펀드'와 국내 회사채 펀드인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모펀드'에 각각 35%, 65% 수준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해당 펀드는 두 자산군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

며, 현재 해당 펀드는 현재 카카오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모펀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베트남 투자 공모펀드로, 지난 11일 에프앤가이드 기준 설정액 2696억원을 기록했다. 고성장이 기대되는 베트남의 대형 우량주에 주로 투자하며 자체 선별한 종목으로 추가 수익을 추구한다.

이 펀드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따른 중산층 출현과 내수 소비 시장 형성 과정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주로 편입했다.

한국투신운용은 베트남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현지 기업 실사를 바탕으로 펀드 구성 종목을 선별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시장 상황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라며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모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2.50%이며 최근 1년, 3년 및 설정일 이후 누적 수익률은 각각 22.50%, 11.78%, 174.21%"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모펀드는 설정액이 1조7718억원 규모인 국내 최대 회사채 펀드로, 주요 투자처가 A-등급 이상의 국내 우량 크레딧 채권(회사채 및 금융채)이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운용, '美나스닥100 ETF' 순자산 4兆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

'국내 최초' 미국대표 지수 상장지수펀드(ETF)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나스닥100 ETF'가 순자산 4조원을 돌파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은 4조 3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상장된 미국 주식형 ETF 중 'TIGER 미국S&P500'에 이어 두번째로 4조원을 돌파한 사례가 됐다. 지난 7일 'TIGER 미국S&P500 ETF'가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최초 순자산 5조원을 넘어선 것까지 합치면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ETF 2종의 총 순자산은 9조원에 달한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4조원 돌파를 기념해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매수 인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